

푸른 이끼 섬돌

최유경 개인전

갤러리 240(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40-37 2층)

2024. 12. 16 - 2024. 12. 20

10:00 - 19:00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주관적 해석만이 존재할 뿐이다.” 철학자 니체의 주장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최유경의 작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의 주관적 경험과 감정이 연달아 떠오른다.

최유경은 본인이 보고 다닌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가치관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작업한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작업의 원천이 되는 셈이다. 여행하며 보고 느낀 자연의 모든 것이 최유경만의 시선으로 재해석되어 그 진실 넘어 주관적 해석을 낳는다. 즉, 지금 살아 숨 쉬는 생명체를 작품의 주인공으로 치환한다.

이번 전시 제목 ‘푸른 이끼 섬돌’은 사영운謝靈運의 「직중서성直中書省」의 ‘푸른 이끼 섬돌 위에 깔려 있네’라는 구절에서 가져왔다. 세속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보내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읊은 한시로, 작가 또한 평온한 상태에 가까워지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았다.

특히 ‘이끼’는 오랜 세월에 걸쳐 뿌리를 내리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스스로를 단단히 지탱하는데, 이는 최유경과 최유경의 작품, 그리고 관객의 능동적인 감상까지 아우르는 주요한 키워드다. 최유경이 보고 느낀 감정을 토대로 한 작업, 그 작업의 결과물을 감상하는 관객은 끈끈한 뿌리로 연결되어 주관적 해석을 낳기 때문이다.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최유경의 시선은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붓터치를 거쳐 섬세한 작품으로 거듭나고, 관객은 섬세한 작품을 감상하며 사색에 잠긴다.

최유경이 이번 전시 ‘푸른 이끼 섬돌’의 대표작으로 꼽은 ‘o!o!o’를 통해 이를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콘크리트 산에 일정한 간격으로 난 구멍(o)과 그런 구멍 사이사이 불규칙하게 자리 잡은 잡초들(!)을 보고 생명이 자라나는 자연과 차가운 인공물 사이 존재하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허물고자 했다.

물과 햇빛, 약간의 흙으로 ‘우연’하게 탄생한 이 생명체들은 고정된 구조 속에서도 나름의 길을 찾아 나서지만 이 조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최유경은 나약한 존재를 따스하게 관망하며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해지는 인간의 속성을 결코 모나지 않은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비단 ‘o!o!o’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이 그렇다. 연약해 보이지만 강인한, 부드러워 보이지만 단단한 작품들이 그 진실한 배경을 넘어 주관적 해석으로 안내하며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한다. ‘푸른 이끼 섬돌’에 기꺼이 잠식되고자, 우리는 사색하고 또 사색한다.

김주현(문화매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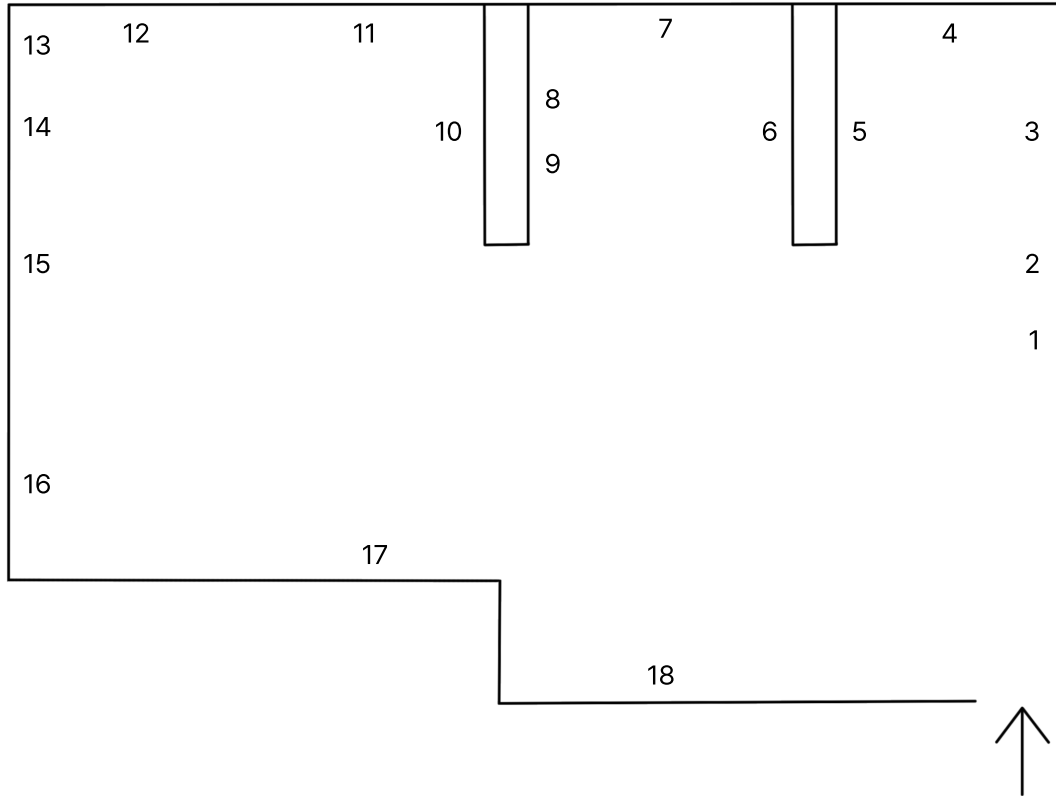
푸른 이끼 섬돌

최유경 개인전

갤러리 240(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40-37 2층)

2024. 12. 16 - 2024. 12. 20

10:00 - 19:00



- 1 <무너지지 마요>, 2024, 캔버스에 유화, 27.3x40.9cm
- 2 <유유자적>, 2024, 린넨에 유화, 90.9x72.7cm
- 3 <일광욕>, 2024, 린넨에 유화, 53x45.5cm
- 4 <혼자만의 세상>, 2024, 린넨에 유화, 90.9x72.7cm
- 5 <뜨거나 가라앉거나>, 2024, 린넨에 유화, 45.5x53cm
- 6 <무임승차>, 2024, 린넨에 유화, 45.5x53cm
- 7 <Have a sweet day>, 2024, 린넨에 유화, 162.2x130.3cm
- 8 <외톨이인 널 사랑해>, 2024, 린넨에 유화, 53x45.5cm
- 9 <A late starter>, 2024, 린넨에 유화, 53x45.5cm
- 10 <Burning Heart>, 2024, 린넨에 유화, 53x45.5cm
- 11 <Mr. Lunchtime>, 2024, 린넨에 유화, 60.6x72.7cm
- 12 <Make your own little lake>, 2024, 린넨에 유화, 53x45.5cm
- 13 <거꾸로 자라는 나무>, 2024, 린넨에 유화, 40.9x27.3cm
- 14 <A crow>, 2024, 린넨에 유화, 53x45.5cm
- 15 <o!o!o>, 2024, 린넨에 유화, 100x80.3cm
- 16 <누구에게나 바다가 있다>, 2024, 캔버스에 유화, 80.3x116.8cm
- 17 <이끼(이끼)>, 2024, 린넨에 유화, 130.3x162.2cm
- 18 <초록빛 잔상>, 2024, 린넨에 유화, 72.7x100cm